

# ‘수능 D-7’ 유통가 수험생 잡기 나선다

### 백화점·대형마트 등 합격 기원 먹거리·보온도시락 등 판매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수험표 뷔페 반값·도시락 사전 예약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유통업체가 50만8000여 수험생 수요를 잡기 위한 판촉전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에 있는 ‘베비에르’ 제과점에서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하고 응원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매장에서는 찹쌀떡과 옛, 초콜릿, 톨케이크 등 수험생이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이 마련됐다.

대형마트들은 초콜릿 과자를 나눠 먹는 ‘11월 11일’ 판촉전과 함께 수능 수험생 응원 먹거리·음품을 판매하고 있다.

초콜릿 꾸러미를 할인 판매하고 일부 상품에 손가방 등을 사은품으로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능 당일 수험장에서 따뜻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보온도시락과 보온병을 할인 판매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휴대용 손난로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홈플러스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1+1’ 행사를 진행하며, 2023학년도 수능 응시 수험표를 제시하면 삼성 휴대폰 구매 때 멤버십 포인트를 더 적립해주거나 키보드와 스마트워치 일부 상품을 1만원 할인해준다.

죽 전문점 본죽은 ‘도시락 사전 예약’ 판매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광주에서는 2곳·전남은 4곳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한다.

사전 예약을 진행할 보온 도시락을 매장에 가져간 뒤 원하는 음식과 가져갈 날짜, 시간을 지정하면 된다.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은 수험표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뷔페를 50% 할인해주는 ‘수고했5’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할인은 응시자 본인에 한해 제공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9일 지하 1층 베비에르 제과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한 간식 꾸러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 “지역 소상공인 우수 제품 12월에 ‘롯데온’에서 만나요”

### 한 달 동안 특별 판매전 18일까지 참가 업체 모집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 물품을 12월 한 달 동안 롯데쇼핑의 온라인몰 ‘롯데온’에서 만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특별판매전’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매전은 ‘2022년 크리스마스마켓’의 하나로 추진되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향상 및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됐다.

기획전에는 광주·전남·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최종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한 소비재 완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소상공인이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획전 참가사로는 모두 25개 업체를 선발한다.

선정된 업체는 롯데온에 입점해 상품을 등록하고 온라인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중기청은 이들 업체에 20% 할인권을 지원한다. 문의 062-360-9161.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홈 스마트시대 활짝 삼성전자 스마트싱스(SmartThings) 기반 홈 IoT 솔루션을 적용한 스마트 아파트가 10만 세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 모델이 스마트 아파트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완도 다시마·고흥 유자 과자, K-푸드 기념품 선정

17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서 기획전

롯데백화점과 한국관광공사가 협업해 홍보하는 음식 관광 기념품에 ‘완도 다시마 두부 과자’와 ‘고흥 유자 샌드웨이퍼’가 이름을 올렸다.

롯데백화점은 서울 본점에 있는 매장 ‘시시호시’에서 이들 ‘K-푸드 기념품’을 알린다고 9일 밝혔다. 상품 발굴과 위생 관리, 포장, 경영 상담, 홍보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한 롯데백화점은 1년여 노

력 끝에 지역 음식 관광 기념품 8종을 상품화해 선보인다.

롯데백화점과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음식 관광 기념품 개발과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134곳을 시장 조사해 100여 품목을 우선 선정한 뒤 전문가들이 참여한 품평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지역 특산품에는 ‘완도 다시마 두부

과자’와 ‘고흥 유자 샌드웨이퍼’, 경북 영덕 ‘대게 계막지장’, 경북 안동 ‘조정 캐러멜’, 충남 서천 ‘김스낵’ 등이 포함됐다.

지역 특산품 8종을 만날 수 있는 롯데백화점 임시 매장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된다.

‘시시호시’ 매장에서는 ‘과줄’, ‘맛밤’, ‘대추칩’ 등의 전통 간식과 전통주 소믈리에인 전진아 박사가 선정한 전통주 10종도 만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카카오 먹통’ 피해 사업장 2117곳...전라권 28곳

### 소공연, 서비스업 12건 최다 실질적 보상안 마련 강조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 먹통’으로 인한 피해를 지난달 17-31일 접수한 결과 2117곳(중복 제외)의 소상공인 업장이 피해를 호소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 전북 소상공인들은 총 28건 피해를 신청했다.

호남권 피해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5건, 숙박업 4건, 제조업 2건, 교육서비스업 2건, 운수업 1건, 외식업 1건, 제과업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미용·피부관리·골프·상담·광고대행 업무 등이 포함되는 서비스업의 경우 특채널 마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 확산 이후 특 채널을 활용해 100% 예약제로만 운영해온 곳이 많았다.

외식업의 경우 카카오오픈이 결제 불가에 따른 피해가 가장 컸고, 특 채널 마비에 의한 주문 접수 불가, 배달 대행업체에서 카카오택을 이용하는 데 따른 배달 불가 등의 피해가 컸다.

연합회 측은 “운수업은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를 피해 호소가 빚발쳤다”며 “도심과 달리 배회 운영을 하지 않는 지역 택시의 경우 카

###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소상공인 현황



카카오T가 시장을 독점한 뒤 중소 콜택시업체가 고사하며 카카오T에 전적으로 의존해와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 측은 유·무료 서비스 여부를 떠나 마비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고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화지점